

명예회복 이규혁·이승훈 “묵묵히 도전”

한국 빙속 최고 스타였던 두 사람 베이징 향해 전진 이규혁 “이승훈과 함께 올림픽 준비 뜻 깊고 기쁘”

‘무관의 영웅’과 ‘한국 빙속 최다 메달의 주인공’이 2022 베이징동계 올림픽을 향해 함께 뛰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전설 이규혁(44) IHQ 감독과 장거리 간판 이승훈(34·IHQ)의 이야기다. 한국 빙속 최고의 스타였던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IHQ에서 감독과 선수로 만나 훈련을 시작했다. 약 5개월 동안 이승훈의 훈련을 직접 지도한 이규혁 감독은 베이징 올림픽 전망에 대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 나선 이규혁 감독은 “이승훈은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선수”라며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남은 기간 잘 보완한다면 기대보다 좋은 모습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은 베이징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와 남자 팀 추월에 출전한다. 주력 종목은 매스스타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은 베이징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다시 메

달 획득에 도전한다. 사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과거 매스스타트는 초반에 눈치 싸움을 펼치다가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초반부터 속력을 높이는 선수들이 많아졌다. 경기 후반 속력을 내는 이승훈에게 불리한 환경이 됐다. 기량도 평창 올림픽 때보다는 떨어졌다. 다만 매스스타트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경험 많은 선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승훈은 직접 지도한 이규혁 감독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승훈은 우승 후보로 꼽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견제가

덜하고, 각종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련함을 갖고 있다. 이규혁 감독은 “이승훈은 많은 경험을 가졌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 감독은 이승훈과 올림픽 준비 과정에 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두 사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다. 이규혁 감독은 2017년 스포츠토토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 4년 동안 빙상계에 복귀하지 못했고, 이승훈도 2019년 징계를 받은 뒤 자숙기간을 보냈다. 두 동계스포츠 영웅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명예 회복의 기회로 삼고 힘을 합쳤다. 연합뉴스



17일부터 31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진행되는 전지 훈련에 나서는 제주Utd 선수들.

제주유나이티드 2022시즌 성공 예열

17~31일 전남 순천서 훈련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전지훈련을 통해 2022시즌 성공의 열매를 가한다. 이달 초 클럽하우스 전용구장에서 실시된 1차 동계훈련에서 몸 풀기를 마친 제주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진행되는 2차 동계훈련을 통해 K리그1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만들 계획이다. 2차 동계훈련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며

최적화 훈련이 가능한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제주는 이번 전지에서 수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조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전술의 완성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남기일 감독은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력 보강이 필요했던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더욱 경쟁력이 생겼다”면서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제주는 하나다!’라는 팀 구호처럼 원팀으로 뭉쳐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서겠다”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잔치 끝났다... 다시 순위 경쟁

프로농구 후반기 레이스 돌입 kt-SK 맞대결·KCC 반등 주목

2년 만에 벌어진 별들의 잔치는 끝나고 치열한 순위싸움이 재개된다. 닷새간의 올스타전 휴식을 끝낸 프로농구 2021-2022시즌이 18일 안양 KGC인삼공사-창원 LG 경기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16일 대구체육관에서 3300명의 관중으로 가득 찬 가운데 2년 만에 개최된 올스타전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10개 구단은 다시 피 말리는 순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당장 19일 수원 kt 아레나에서는 ‘통신 라이벌’인 2위 수원 kt(23승 9패)와 1위서울 SK(24승 8패) 간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이 예정돼 있다. 양강 체제를 굳힌 두 팀 모두에 후반기 첫 경기다. 지난해를 마무리할 때는 kt가 SK에 2경기 차로 앞선 1위였다. 하지만 새해 치른 5경기에서 SK는 모두 승리하며 6연승 행진을 벌인 반면, kt는 6연승이 무산된 뒤 2연패를 당하는 등 2승 3패로 주춤

하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두 팀의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SK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다. 시즌 개막 전 발목을 다친 kt 허훈이 빠졌던 1, 2라운드 대결에서는 SK가 모두 승리했다. 하지만 허훈이 복귀한 뒤 격돌한 3라운드에서는 kt가 이겼다. SK는 kt와 경기 후 22일 원주 DB와 홈 경기를 치른다. kt에는 이번 주말 LG, 울산 현대모비스와 원정 2연전이 기다리고 있다. 중위권에서 치열하게 치고받는 중인 DB, LG, 현대모비스 모두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SK와 kt로서도 만만찮은 상대들이다. 후반기 재개와 함께 전주 KCC가 연패 사슬을 언제 끊을지도 관심사다. KCC는 팀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인 10연패를 당하고 휴식을 맞았다. 앞 2007년 1~2월과 2015년 1~2월 10연패를 당한 바 있는 KCC는 7년 만에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다. KCC는 19일 고양 오리온전으로 시작해 22일 서울 삼성, 23일 인삼공사와 홈 3연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내 공을 받아라!” 17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의 멜버른파크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 단식 1회전 라파엘 나달과 마르코스 지몬의 경기에서 나달이 공격을 하고 있다. 이날 나달은 기론을 세트 스코어 3-0(6-1 6-4 6-2)으로 꺾고 2회전에 올랐다. 연합뉴스

‘괴물’ 케이타의 역대급 득점 행진

프로배구 득점 신기록 예상

프로배구의 ‘괴물’ 공격수 노우모리 케이타(21·KB손해보험)가 역대급 득점 행진 중이다. 케이타는 17일 현재 이번 시즌 23경기에서 857득점을 터뜨려 이 부문 압도적인 1위를 달린다. 같은 경기 수에 한 세트를 덜 뽐낸 득점 2위 카일 러셀보다도 무려 201점을 더 냈다.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득점은 37.26점으로 리그에 데뷔한 지난 시즌의 34.75점(33경기 1147점)보다 더 올라갔다. 지금 추세라면 케이타는 두 시즌 연속 1000득점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역대 V리그 남자부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도 바라볼 만하다. 현재 OK금융그룹에서 뛰는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는 삼성화재 소속이던 2014-2015시즌 무려 1282점을 터뜨려 역대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다. 그는

당시 경기당 평균 37.70점이나 폭발했다. 득점 신기록을 예상하는 요인은 두 가지다. 케이타는 V리그에 완벽하게 적응해 높이와 힘만 앞세우던 지난 시즌보다 훨씬 진화했다. KB손보와 한국전력의 16일 경기를 중계한 이진규 SBS 스포츠 해설위원은 케이타가 한국전력의 높은 3인 블로커를 쉽게 뚫고 타점 높은 강타를 내려 찍는 모습에 여러 차례 놀라움을 나타냈다. 세트 황백의와의 호흡도 나아졌고, 공격할 때 노련미도 보였다. 헬기만 앞설 것 같지만, 케이타는 해결사이자 팀의 구심점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 득점 후 신나는 세리머니로 상대 팀 선수들을 자극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엔 장난기를 자제하고 경기에 집중한다. 이제 갓 스무 살을 넘은 그의 나이는 최대 무기다.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5 방진방수인증

(주)팜그린텍

공기교반기(60W, 130W)

- 특허 제10-2078975호
- 특허 받은 바람판 도출구조로 인해 공기흐름 사각지대 최소화

송풍팬(60W, 130W)

- 파이프 체결을 고정구가 있어 안정적이고 깔끔한 송풍팬 시공

환풍기

서터 환풍기(800W)

- 프레임 보강 서터 사용 내구성 강화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천장형 환풍기(330W)

- 특허 제10-2182942호
- 표면위로 도출되지 않는 기종으로 배면 고온공기, 유해가스 배출

하우스지킴이

- 고온, 저온 설정 범위초과시 휴대폰 알림 기능

결상 전원전환장치

- 특허 제10-2196685호
- 결상(단전)시 하우스개폐기 전원 자동전환 고온, 저온피해 방지 기능

(하우스지킴이와 결상 전원전환장치 호환가능)

2022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품목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